

기아차 전 노조간부 구속기소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19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뒤 도주한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부장검사 신승희) 기아차 광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준다는 대가로 1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아차노조 광주지회 전 부회장 황 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기아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28명에게 18억8,950만 원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기아차 인사담당자나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로 취업 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난달 조 검거됐다. /이나라 기자

도심 달리던 버스 엔진서 연기

도심을 지나던 관광버스 엔진룸서 연기가 치솟았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1일 오후 2시 41분께 서구 무진대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연기가 치솟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소방대는 버스 배기구 쪽에서 연기가 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기를 진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관광버스에는 운전자 1명만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

관광버스는 엔진부 이상 경고등이 들어와 정비공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버스 뒤쪽 엔진룸에서 새어나온 기름이 뜨겁게 달궈진 배기구로 스며들어 연기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가 다량 피어올랐으나 불길이 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문 열어줘” 카페 화분 깨트려



○...카페업주가 영입이 끝났으며 출입문을 닫자 화분 2개를 부순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 모씨(50)는 이날 새벽 2시 40분께 서구 풍암동의 한 카페 노상에서 출입문 앞에 놓인 화분 2개(20만원 상당)를 손괴한 혐의.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영입이 끝났으며 귀가를 요구하는 카페 업주에게 오씨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생떼를 쓰기도 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국내 최고 디저트 교육기관으로 우뚝설 것”



유아시스 김소우 대표

“국내 최고의 디저트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광주지역에서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고 쇼콜라티에(초콜릿을 만드는 사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유아시스 김소우 대표(26·여).

김대표는 대학시절 교양과목 가운데 ‘창업 강좌’가 인연이 돼 일찍이 사업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김대표는 창업 성공 신화를 접하면서 구체적인 대박의 꿈을 키워 나갔다.

전국 각지 디저트 맛집 찾아서 노하우 습득 ‘수제초콜릿’ 특화 아이템 상품가치 높여 제빵·제과 디저트 전문인력 육성에도 매진

가장 먼저,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재학중이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김 대표는 사관학교 과정을 이수하면서 첫 사업 아이템으로 디저트 사업을 구상했다.

김 대표는 “한달 가까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창업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고민을 거듭한 끝에 평소 좋아하던 디저트를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과정과 수익 포인트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디저트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초콜릿’을 특화된 아이템으로 꾸며 상품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초콜릿을 수제로 직접 만드는 ‘쇼콜라티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디저트 관련 맛집을 찾아 노하우 등도 배우고 익혔다.

이런 노력 끝에 김 대표의 디저트 카페 사업은 대박을 터트렸다.

지난 2016년 광산구 수완지구에 수제 초콜릿 전문 디저트 카페를 개장해 오픈 2시간만에 전 메뉴가 품절되는 ‘빅 히트’를 쳤다.

김 대표의 성공비결은 초콜릿이란 흔한 먹거리를 특화된 아이템으로 꾸며 10~20대 소비자들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다.

김 대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후배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점단지구에 ‘유아시스 베이킹 앤 초콜릿 스튜디오’를 개장해 쇼콜라티에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쇼콜라티에 협회에서 진행한 ‘한일 초콜릿 문화교류 사업’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 대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후배

김 대표는 “한일 교류를 위해 일본 니가타 최고 요리제과 전문학교인 쇼콜라티에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 수업을 진행했다”며 “일본요리제과 최고의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이용한 노하우 등을 전수해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창업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등 사회환원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아프리카 식수를 지원하는 ‘팀엔 팀 선물 캠페인’ 후원을 통해 1,000여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무등음악원이나 유니세프 등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 최고의 디저트 전문교육 기관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며 “제빵 제과 등 디저트 관련 수업 범위를 넓히고, 전문인력 육성에 더욱 매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기주 수습기자

성희룡 여고 교무실 ‘초토화’

교사 20% 수사 대상...학사운영 어려움

교사의 여고생 성희롱·성추행 파문을 겪고 있는 광주 한 여고에 대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수사와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 의뢰 대상이 전체 교원의 20%에 달하는데다 성 비위 처벌 특성상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교사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수사 의뢰가 공식 접수되는 즉시 해당 학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대상 전수 조사 자료 등을 전달받으면 이를 토대로 성 비위 혐의 교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 전수 조사에서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과도한 언어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 860여 명 중 180여 명이다.

이 학교 교사는 57명으로 남자 39명, 여자 18명이다. 이 중 현재 수사 대상은 11명이다.

전체 교사의 20%가 수사를 받아야 해 교사 5명 중 1명꼴로 경찰서에 불려갈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해당 교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이뤄질 경우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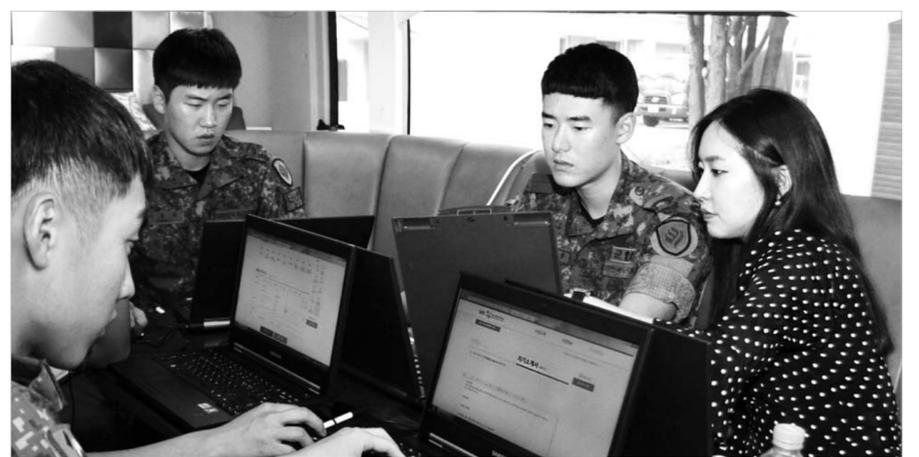
수능이 코앞에 닥친 고3 수험생은 물론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학교 측은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채용할 방침이며 교육청도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감사관실의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면 징계 대상도 정해질 것이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가해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무엇보다 학생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민원·생활불편 제보 720-1050



31사단은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후원을 청년장병 진로 및 취업도움 사업을 시작해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취업희망버스’ 군부대로 달려간다 중기공단, 31사단 장병 취업지원 나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전역 후 고민 1순위인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육군 제31보병사단이 소매를 걷고 나섰다.

1일 31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청년장병 진로 및 취업도움 사업’을

시작했다. ‘청년장병 진로 및 취업도움 사업’은 진로교육, 1대1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면접 및 취업 코치 등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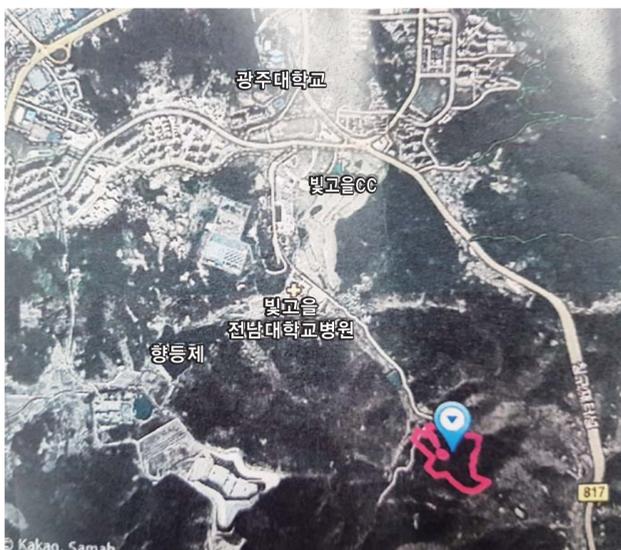
31사단은 광주·전남 전역 곳곳에 있는 장병들에게 진로교육·취업상

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희망버스’를 운영, 일선 부대에 직접 찾아가 취업도움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 전문상담관을 사단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31사단 인사참모 심현용 중령은 “장병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